

긴밀한 소통과 공동의 목표 확인으로 현안 해결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9일 ‘여아정 협치위원회’ 출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9일 도의회 예담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아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치 행보에 나선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김진경 의장, 백현중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 수석부대표의원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위원회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자리에서 “일의 대부분은 긴밀한 소통과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정책 사항, 예산안, 교육 현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 사안과 애로사항 등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챙기도록 하겠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도교육청을 바라봐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협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구성된 ‘여아정 협의회’가 확대, 발전된 형태로 양 기관 간 정책 논의 구조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협치위원회는 ▲주요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사회적 현안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조율하는 공식 협의 구조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의회와 경기교육 발전과 미래세대 성장을 위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의 장을 열어갈 방침이다.

송민수 기자

과천시, 태양광 버스정보안내기 시범 설치



과천시는 사기막골 경로당 앞 등 버스정류장 5곳에 친환경(태양광)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시범 설치해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도시 외곽 버스정보취약구간 50개소에 확대 설치해 보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정보안내기는 정류장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단말기이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보급률이 높은 반면 마을버스 정류장은 전기·통신 공사 문제로 설치가 어려워 버스 정보 취약 구간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과천시는 전기공사가 필요 없고 전기료 부담도 없는 전자종이

(E-paper) 기반 태양광 버스정보안내기를 도입했다.

시범 설치는 주민 요청이 많았던 뒷골, 푸르지오씨밋, 사기막골, 가일, 세곡 등 버스정류장 5개소에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진행됐다.

지난 여름 장마철과 폭염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배터리 방전이나 고장 없이 정상 작동해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인했다.

효과 분석 결과, 태양광 버스정보안내기는 기존 방식 대비 전력 소비량을 약 93% 줄였으며, 연간 탄소배출량도 22.93kg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과 통신공사 비용이 들지 않아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태양광 에너지와 전자종이를 활용한 친환경 버스정보안내기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동시에 교통 소외지역의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누리천문대 개기월식 특별관측회 성료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9월 8일(월) 새벽,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에서 개최한 ‘달이 사라지는 순간, 누리천문대 개기월식 특별관측회’를 3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측회에는 주말이 아닌 월요일 새벽, 평일 일정이 있는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직장인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자녀와 함께한 가족 단위 참가자도 많아 세대를 아우른 참여가 돋보였다.

행사는 자정부터 시작된 초경 관연에서 개기월식의 원리와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들은 뒤, 옥상 누리천문대로 올라가 천체망원경과 쌍안경을 통해 월식 전 과정을 관측했다.

북쪽 구름이 간간히 끼어 관측에 방해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월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의 장엄한 장면까지는 시민들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모두 지켜볼 수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새벽 4시가 넘도록 잠도 잊은 채 하늘을 바라보며 붉게 물든 달의 신비로운 모습을 감상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과 피곤함을 뒤로하고 우주의 장엄한 현상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누리천문대를 통해 시민들이 별과 우주를 가까이에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누리천문대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천문학 강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과학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설명회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해 9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및 투자설명회’ 개최

베트남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지원제도와 경기도 투자환경 소개

국내복귀기업 성공사례 소개와 현지법인 청산 관련 금융·법률 안내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경기도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로, 현지 진출기업 25개 사,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및 관계자 등 총 37명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와 경기도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해외 사업장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정보도 제공했다.

베트남은 동남아국가 중 해외진출기업이 다수 소재한 국가로 우리기업의 주요 해외 진출 거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는 국내복귀에 관심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발굴하고, 도내 재투자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제조자동차와 지원, 회계감정비용 지원 등을 통해 16개 기업에 총 26억 8천만 원을 지원했으



며, 내년부터는 중대재해 예방 시설개선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의료바이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경기도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을 오는 12일 오후 3시까지 긴급 모집한다.

이번 참가기업 모집은 짧은 모집 기간으로 인해 긴급 추진되는 것으로, 참가 희망 기업은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현지 유력 바이어 섭외가 진행 중인 만큼, 선정된 기업들은 단기간 내 실질적인 수출상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은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5박 7일) 파견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튀르키예 이스탄불 2개 지역에서 운영된다.

의료기기·바이오헬스·디지털헬스 등 의료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1:1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하며, 중동 지역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의료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한다.

유통망 진입, 시장 반응 검증,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노릴 수 있다.

송민수 기자

국공립 신현어린이집 개원…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

광주시는 신현 행정문화체육센터 1층에 국공립 신현어린이집을 새롭게 개원했다고 밝혔다.

9월 1일 개원한 신현어린이집은 전용면적 666.48㎡ 규모에 7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있으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신 보육 환경을 갖췄다.

또한, 장애아동함, 야간연장형 취아 보육을 운영하여 다양한 가정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아동 안전과 발달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행정문화체육센터 내에 위치하여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번 개원으로 신현 지역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 국공립 체제로 위탁 운영되며, 투명하고 공공성 높은 보육



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국공립 신현어린이집 개원은 양질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미래를 여는 시간, 포천 진로·진학 콘서트’ 성곡적으로 개최

교육 전문가 강연으로 실질적 진로·학습 전략 제시



잡기 어려웠는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콘서트에 참석한 한 학생은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포천의 미래 인재들이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수원시,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법 ‘부모공감 토크콘서트’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8일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딱딱한 부모보다 톡톡(Talk.Talk)한 부모 되기 - 부모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강연에서 이서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자녀를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방법 ▲갈등 상황에서 부모의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하는 법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감정 표현과 소통 실습 등을 소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초·중등 자녀 보호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전 접수한 질문 중 10개를 선정해 현장에서 답변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와의 소통법, 부모 권위를 지키면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법 등 다양한 상황별 해결 방안을 공유했다.

수원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았고, 2022년 상위 인증을 획득했다. 2025년 12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상위 인증 갱신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감정을 나누고 소통법을 배우며 서로에게 힘이 돼 주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아동친화도시 수원에 걸맞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도현·처인

초중 승하차 베이 설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지난 3월 개교한 처인초·중학교와 도현초·중학교 정문 일원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하차 베이 설치에는 이상일 시장이 학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업이다.

구는 두 학교 정문 일원에 40m 길이의 승하차 베이를 조성하기로 하고, 용인동부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마쳤다.

승하차 베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 1억 2000만 원은 경기도에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해 확보했다. 승하차 베이는 9월 중 착공, 10월 말 준공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시는 지속적으로 학교 앞의 환경을 개선해 왔고, 이번에도 신속하게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다”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올해 신설된 두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소중한 생명, 소중한 당

신-소소.DAY’ 자살예방 캠페인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안양시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 ‘소소.DAY - 소중한 생명, 소중한 당신’ 자살예방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이트키퍼 봉사단 ‘비상’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삼덕공원 및 안양 중앙시장 일대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마음건강검진 ▲고위험군 대상자 상담 연계 서비스 ▲생명 존중 메시지를 담은 인생 4컷 컷팅부스 ▲노인 정신건강 안내 및 자살 예방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센터는 9월 한 달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14일 평촌 중앙공원에서는 ‘제14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LIFE WALKING)’과 자가검진 및 톡톡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어 2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정신건강 홍보부스를 통해 서로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24일 센터는 안양아트센터 청년 취업박람회 현장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스트레스 척도를 측정하고 마음 건강을 돌볼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살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회적 문제다. 우리 주변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생명을 살리는 한 걸음”이라며, “이번 ‘소소.DAY’를 비롯한 자살예방 캠페인을 통해 시민 모두가 생명 존중 문화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